



보광 스님 동국대 교수
학문·수행·전법 모두
'정도가꾸기'의 한 길
16·17면

현대불교

창간 20년
2014

금주의 법구-〈법구경〉



부지런함은 깨달음의 길이요
나태한 것은 죽음의 길이다.
노력하는 사람은 영원하다.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58년 단기 4347년(음력 1월 20일) · 주간

대표내선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 980호 2014년 2월 19일 수요일

수행 결사, 불자 신행 트렌드로 '부상'

권수행(62·여)씨는 매일 새벽 2시에 <보리방편문> 288자를 108번 이상 독송하거나 나무아미타불을 1080회 이상 염불한다. 인터넷 카페 '금강(金剛)'에서 인터넷 사경을 한다. 또 매일 둘째 주 화요일에 도반들과 모여 경전공부를 하며 호트린진 마음을 다잡는다.



'청정승가를위한대중결사'는 안거수행 프로그램을 개발해 2011년부터 재가신도들이 동·하안거에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불자들의 신행 패턴이 달라지고 있다. 사찰 정기법회나 49재, 초하루기도 등에 참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방식에서 종교적 지향을 공유하는 이들끼리 신행 실천의 약속을 맺고 주기적인 모임을 통해 수행을 함께 하는 신앙공동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

재가불자들은 이른바 '결사(結社)'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행 하면서 도반들과 수행담을 공유하고 서로 격려한다. 결사에 동참하고 있는 사찰과 재가단체들은 일반적으로 100일, 1000일 단위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정진을 하고 있다.

정도회(지도법사 법문)는 '정도회 만일결사'를 통해 1만일을 목표로 정진하고 있다. 정도행자들은 매일 아침 참회문 독송-108배기도-10분명상-경전읽기를 한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것을 원칙으로 1일 1선행 1000원 이상의 보시를 통해 세상의 나뭇을 실천한다.

금강선원(원장 혜가도)도 2012년 1월 1일부터 보살사상 실천을 위한 만일수행결사를 이어오고 있다. 개별적으로 금강경독송을 하면서, 5명이 한 팀이 돼 매주 한 번씩 모임을 갖고 수행을 함께 하며 수행담을 공유한다.

청정승가를위한대중결사의의장 만 초는 안거수행 프로그램을 개발해 2011년부터 재가신도들이 동·하안거에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현재 흥법사, 미황사, 봉은사 등 10여개 사찰이 대중결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안거에 동참한 인원만 6000명이 넘는다. 재가자들은 안거 기간 동안 매일 삼귀의-수행서원문 염송-칠보 선행하기 등 기본수행에 동참하며, 수행록에 일지를 적으며 하루 수행을 점검한다.

각 사찰에서는 매일 보름날마다 포살일을 두고 수행대중이 모여 함께 수행선언문을 염송하고 그간의 수행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청정승가를위한대중결사는 안거 해제 시 수행을 마친 재가자들에게 안거

증을 수여하고 있으며 매년 전국 사찰에서 수행했던 재가자들이 모여 경험을 나누는 '대중결사 결집대회'를 열고 있다.

이 밖에 불교여성개발원 승만경연구회(회장 이인자)는 '승만보살 10대원 정진'을 진행하고 있다. 수계법회를 통해 회원이 된 여성불자들은 승만보살 10대원 카드를 받아 매일 10대원을 독송하고 수행일지를 체크한다. 또한 매주 1회 모임을 만들어 수행담을 공유하고 100일마다 회향법회를 통해 수행을 접거하며 격려하는 자리를 가진다.

재가불자, 결사 구성 통해
수행 정보 공유·독려 '활발'
'변화의 첫 걸음' 한 목소리

한 경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수행을 하는 곳도 있다. 일산 덕양선원(주지 법상)은 2004년부터 신도들과 천수대비주(신묘장구대다라니) 다라니 정공을 해오고 있다. 신도들은 49일 기도입재에 들어 매일 신묘장구대다라니 독송을 49독 이상 하고 계시판에 수행일지를 쓴다. 다라니 독송으로 지치고 힘들 때 혹은 수행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 때 회원들이 쓴 일지를 보며 힘을 얻는다. 또 매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독송철야정진에 참여하며 서로 힘을 얻는다.

서울 조계사(주지 도문)는 지난 1월 5일부터 갑오년 저녁 특별기도 '여시아문'을 진행하고 있다. '명훈가피' '지혜증득' '지혜실천'을 주제로 매일 오후 6시 30여일씩 진행되고 있다. 재가자들은 명훈가피 수행기간에는 <금강경>을, 지혜증득

기간에는 문수보살 예찬문 독송을, 지혜실천 기간에는 보현보살 예찬문을 독송·정진한다.

조계사 측은 "〈금강경〉 같은 경우는 강의를 설명해줘야 하는데 반복적인 독송과 기도를 하다보면 불자들은 내용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된다"며 "또한 일정 기간 동안 퇴근 시간에 맞춰 특별기도를 시행하니 주변의 직장인들을 비롯해 많은 불자들이 동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수행을 통해 신도들은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겪는다. 인터넷 '금강 카페'를 통해 전법을 펼치는 배광식 서울대 교수는 "혼자 수행을 하면 내가 잘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결심이 흔들려 수행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럴 때 도반들과 일정기간 한 가지 수행을 함께 하고 공유하면 지속하기도 쉽다"고 설명했다.

덕양선원 다라니 100만독을 성취한 선정경 보살은 "5년 여 만에 다라니 100만독을 성취한 뒤로 내 몸과 마음은 변했고 차츰 삶의 방식도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남편을 원망하던 마음도 줄어들었고, 요즘은 오히려 고마운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불자라고 하면서도 수행하는 방법을 몰라 헤매고 있는 불자들에게 결사와 같은 신행활동은 큰 호응을 얻을 수 있다.

청정승가를위한대중결사의의장 만 초 스님은 "불교가 수행의 종교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개인들은 자기만의 수행을 갖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대중결사는 수행을 일반화·생활화 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다. 재가자들은 불교를 일상 속으로 가져와 자신을 변화시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나는 기자 oasis1983@hyunbul.com



萬行에 오르는 길 겨우내 석달의 안거가 끝났다. 쌍계사 금당선원에는 벌써 때 이른 춘풍(春風)의 느껴진다. 안거 기간 중 은산철벽을 부수기 위한 정진을 거듭했을 수좌들이 자신들의 걸망을 꾸리고 이제는 만행에 나선다. 금당선원 서방장에는 아직도 칼날 같은 수좌들의 선기가 남아 있다. 전국 선원의 안거는 2월 14일 해제됐으며, 98개 선원에서 2천여 수좌가 정진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신종일 기자

관련 기사·법어 3, 8면

제한구역 내 사찰 증축 쉬워진다

정부 관련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대지 조성 제한 해소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있는 전통 사찰들의 불사가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2월 12일 "지난 1월 28일, 개발제한구역 내 전통사찰이 증축을 할 경우 이에 필요한 대지조성의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전통사찰의 증축을 위해 새로운 대지를 조성할 수 있는 면적은 건축물의 수평투영면적의 2배 이내로 하며, 1만㎡를 초과하는 새로운 대지조성이 수반되는 때에는 전통사찰보육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대지조성 가능 면적은 처마까지 포함된 건축물의 수평투영면적의 2배 이내까지로 확대됐으며 1만㎡(약 3,000평)를 넘는 경우에는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가능하게 대지조성에 대한 제한도 상당 부분 해소됐다.

이에 대해 조계종은 "이번 개정은 전통사찰의 전통적인 가람배치의 특수성과 건축양식의 특수성이 반영된 것으로 전체적인 규모의 가람정비를 계획하고 있는 전통사찰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향후에도 개발제한구역 내 위치한 전통사찰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전통사찰의 발전을 위해 더욱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종일 기자

원로 불교학자 목정배 교수 입적

8일 향년 78세로... 희귀암 투병에도 강의 '귀감'

불교계 원로학자 목정배 동국대 명예교수(사진)가 2월 8일 향년 78세의 나이에 지병으로 별세했다. 목정배 교수는 희귀암인 '신경내분비종양'으로 투병하던 지난해에도 불교평론 열린논단을 비롯한 강단에 서는 등 정신력으로 이를 극복해왔다.



목 교수는 당시 자신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심력(心力)' 때문이며 2012년 투병 중에도 부산의 학술세미나에 참석했던 것도 꼭 가야겠다는 마음을 하나로 모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후학들이 주변의 직장인들을 비롯해 많은 믿음을 갖고 각자의 길에 매진 해 줄 것을 당부하는 마지막 말을 남겼다.

1937년 출생한 고 목정배 교수는 1964년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졸업한 후 1965년 불교신문 기자에서 출발해 1987년 동국대 대학원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다. 1975년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교수로 부임해 1987년 불교대 학장, 1990년 불교문화연구원장, 1996년 성철선사상연구위원장, 1999년 한국불교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2002년 퇴임 후에는 동국대학교 명예교수와 사단법인 대한불교법사회 이사장, 2004년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총장을 역임하고 불교학 발전과 재가신행운동 전개 등으로 끊임없는 활동을 해왔다. 중앙대 총장을 역임했던 박병훈 교수를 비롯해 동국대 불교학과 신성현 교수, 원광대 서예학과 선주선 교수,

제주교대 고대만 교수 등 불교계의 중진 학자들을 길러냈다.

2012년 10월 발병한 이래 투병 중이던 지난해 2월에는 병원에서 항암·방사선 치료를 받고 목정배 박사는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4일 만에 특별한출을 허락받아 불교평론 열린논단에서 발제에 나서 후학들의 박수를 받았다. 5월에는 '우리 동네 소풍가요'라는 제목의 자택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병마에 시달리면서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꾸준한 활동을 이어왔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초기 불교교단의 형성에 대하여>(한국 불교학 3, 1977), <계율론>(동국경원, 1988), <대승보살계사상>(동국경원, 1988), <삼국시대의 불교>(동국대학교출판부, 1989), <범망경술기 외>(동국경원, 1994), <한국문화와 불교>(불교시대사, 1995), <불교와 예술>(대한불교법사회, 1996), <한국불교학의 현대적 모색>(동국대학교출판부, 2000), <계율학>(장경각, 2001) 등이 있다.

노덕현 기자 추모 칼럼 31면

조계종 197차 중앙총회 3월18일 개원

종무기관 결산 감사·종헌개정안 등 심의 예정

불기 2557년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결산감사 등을 다루기 위한 제 197차 중앙총회 임시회가 3월18일 열린다.

조계종 중앙총회(의장 향적)는 2월 11일 제11차 의장단 및 삼인분과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제197차 임시중앙총회를 3월18일 오전 10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회기는 5일 간이다. 이에 따라 중앙총회는 3월11일까지 의안을 접수받기로 했으며, 종책질의회는 13일까지 받는다.

이번 임시회에는 무진장 스님 입적에 따른 원로의원 추천을 비롯해 △소청심사위원회(법준 스님 임기 만료), 종립학교관리위원회(장명 스

님·종호 스님 임기만료), 호법분과위원장, 총림실사위원장, 진흥원 제자리찾기특별위원장 선출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196차 정기회에서 이월된 종법제 개정안과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도 논의되며 '종헌개정 및 종법제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발의한 종헌종법개정안을 심의된다.

이와 함께 종헌 특위는 11일 제12차 회의를 열고 197차 임시회에 상정할 종헌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자기마음의 뿌리, 자기생명의근본으로 곧장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語 -
'삶이 곧 불법' 입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돌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주문은 현불삼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현불삼 | 서울시 중로구 수송동 46-21 www.hyunbulshop.com

- 본문 중에서

